



[MWC D-7] 이통사 수장 MWC 총출동 5G 글로벌 외교 03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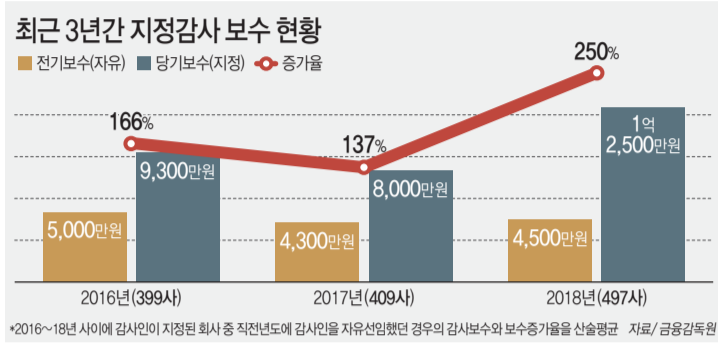
코스피	2196.09 (0.00)	코스닥	738.66 (0.00)
금리 (미국 3년)	1.78 (-0.02)	환율 (원/달러)	1128.70 (+3.60) (15일)

‘지정감사’가 뭐길래... 회계비용 3.5배 ↑ 기업 ‘찢찢’

감사보수 250% 뺨튀기에 당국, 부당 요구 제재나서 금감원 ‘신고센터’도 운영

자산 260억원 규모의 A사는 상장을 앞두고 있어 지난해 4월에 지정감사 대상이 됐다. 지정된 감사인이 요구한 보수는 2억3000만원으로 전년(1300만원)보다 무려 18배 가까이 높았지만 A사는 울며겨자 먹기로 계약을 해야 했다.

자산 1300억원의 비상장법인 B사는 지난해 7월에 감리조치 사유로 감사인을 지정받았다. 그러나 회계법인과 보수문제로 계약체결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보수분쟁으로 체결기한인 7월 말보다 다섯 달 늦은 12월에야 계약을 할 수 있었다.



지정감사제가 감사보수 ‘뺨튀기’로 이어지면서 감독당국이 경고에 나섰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699개사 중 전기에 감사인을 자유선임했던 497개사의 감사보수를 분석한 결과, 지정감사보수가 전기 자유선임에 비해 평균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임 대비 감사인지정 보수증가율은 지난 2016년 166%, 2017년 137%로 지속적으로 높았지만 지난해는 250%로 급등하며 최근 3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자유선임 대신 감사인을 지정한다. 감사인 선택권에 제한이 있을 뿐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감사라는 본질은 자유선임과 다를 바 없다. 문제는 회사 규모나 감사투입시간 등에 큰 변동이 없음에도 ‘지정사실’만으로 자유선임에 비해 감사보수가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특히 중소형회사의 경우 감사인 지정에 따른 보수부담이 더욱 컸다. 작년 자산 1조원 이상 대형회사 19개사의 지정보수는 평균 169% 상승했다. 반면 감사보수 협상력이 낮은 자산 1조원 미만 중소형 회사 478개사의 경우 지정보수가 253%나 높아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감사인

을 지정받은 회사 중 일부가 회계법인과 감사보수 분쟁으로 계약 체결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자유선임에 비해 과도한 보수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상 회계관리국장은 “지정감사시 회계법인의 과도한 보수요구는 회사에게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유선임과 지정감사 간 현격한 보수격차를 유발해 자유선임 감사업무에 대한 시장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먼저 지정감사 계약 체결이 지연된 회사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보수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자율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과 감사인 간 보

수협약에 난항을 겪는 경우, 감사 등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부여할 방침이다. 원래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통지 후 2주 이내에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과도한 보수를 요구받았다면 감사(감사위원)회)가 일정요건을 갖춰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회사에서 요청할 경우 규모가 비슷한 회사들의 과거 지정감사 보수수준도 안내하고, 회계법인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보수를 요구한다는 징후가 발견되면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부산·세종, 막오른 스마트시티 시대 기반시설 구축에 2.2조... 113개社 참여

스마트시티 사업이 본격화됐다. 지난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스마트시티 조성을 시작하는데 이어, 정부도 세계 최초로 부산과 세종시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총 사업비는 2조 2083억원이며, 2021년께 실제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첨단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서비스 도입과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스마트시티는 7대 서비스를 중심으로 꾸며진다. ▲모빌리티

도시 통제위험 방법·보안에 한컴, ESE 등 40여곳 참여
에너지사업에 한화 등 10곳
통신 인프라에 KT 등 16개사
모빌리티에 현대차 등 참여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등이다. 관련 기업 113개가 모인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도 출범했다. 대기업 26개와 중소기업 37개, 스타트업 50개사다. 올해말까

지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내년에는 민간특수목적법인(SPC)까지 설립기로 했다. 스마트시티의 핵심 기반 시설은 통합 플랫폼이다. 거버넌스 부문이다. 얼라이언스 참가 기업을 분석해보면 관제 시스템 개발과 방법 및 보안 등 관련사만 40여개에 달한다. 최근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한글과 컴퓨터가 대표적이다. ESE와 정도 UIT, 플렉시티 등도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해왔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도 스마트시



세종 5-1 생활권 구상도. / 국토교통부

티 핵심 요소다. 세종 ‘5-1 생활권’에는 제로에너지타운을, 부산 ‘에코델타시티’에는 60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와 국내 최초 수열에너지를 구축하는 등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여러 에너지 기업들이 얼라이언스에 동참했다. 한화 에너지와 현대일렉트릭에너지

비롯해 이쿠브랩과 해썬, 대연씨앤아이 등 태양광과 중수 등 미래 에너지를 연구하는 기업 10여개가 함께한다. 헬스케어도 스마트시티 필수 요소다. 세종과 부산 모두 헬스케어 지역을 따로 구축할 예정이다. 충남대병원과 네오팩트, 비트컴퓨터 등 의료 기술 관련 업체들이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상태다.

통신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노력이 들여진다.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3대 통신사와 함께 글로벌텔레콤과 다산네트웍스, 휴맥스 등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장비 업체들이 스마트시티 연결에 나선다. 얼라이언스 16개사 정도가 통신과 관련이 깊다. 현대자동차와 카카오모빌리티, 쏘카는 스마트시티에 스마트 모빌리티를 심는다. 포스코ICT는 충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쇼핑 관련 기업 참여도 눈에 띈다. 이마트와 신세계 프라퍼티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어디서나 쇼핑을 가능케할 뿐 아니라 미래 쇼핑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현대페이는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김재웅 기자 juk@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이번 발생한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큰 슬픔에 잠긴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저희 (주)한화 임직원들은 안타까운 인명피해에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주)한화는 사고 발생 즉시 현장 대응팀을 꾸려 관련 기관 등과 함께 사고 수습 및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어떤 결과에도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주)한화 대표이사 및 임직원 일동